모든 중생의 소원 성취시키는 또 하나의 신비한 도량

동해안 바닷가에 현신하신 관세음보살 계신 도량 휴휴암(休休庵)



◇破 愼劫 沈默 海中觀世音菩薩 (억겁동안 침묵에 계시다가 선정에서 깨어나신 관세음 보살님)

이 시대에 이루어진 또 하나의 신비한 도량 휴휴암(休休庵). 영동고속도로 현남톨게이트를 지나 양양 방향으로 5분정도 달리다 보면 눈앞에 펼쳐진 시원한 바다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기괴암석의 놀라운 절경 속에 자연과 정말 잘 어우러진 불도량을 발견하게 된다. 휴휴암은 바닷가에 인접한 사찰 중에서도 국내유일의 천수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기도 도량이다. 양양군 관진리 1번지에 있으니 불법 번창 시작점의 역할을 인연짓고 있으며, 수행승의 정진으로 일구어진 사찰

중생의 업보 세속의 번뇌망상을 씻어버리고 ...

인 만큼 마음의 고향에서 느껴볼 수 있는 아늑함이 존재한다. 근래에는 바다의 해중관음보살님의 출현으로 불자들의 끊임없는 참배와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묘한 이적들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도량으로 회자되고 있다.

휴휴암 주지 홍법스님의 넉넉함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스님, 불자라면 어느 누구나 휴휴암에서 쉴 자격이 있다며 누구에게나 서슴없이 빈방을 내어준다. 본시 불제자라면 부처님 도량에서 휴식하고, 기도하고, 공부할 자격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씀이다. 휴휴암은 원을 세우고 일심 정진하는 스님 및 대중들에게 좋은 기도처로서 훌륭한 사찰임을 여러가지 체험과 기이한 일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해중관세음보살님께 기도드리는 불자들



◇휴휴암에서 바라본 거북바위 (장수바위)

묘적전은 이름만큼이나 묘한 이적을 통해 지어졌다. 묘적전 점안식을 3일 앞두고 단청작업은 끝났지만 서둘러 마무리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법회를 보아야 했기 때문에 법당 마루 평탄작업이 시급했고 이 일이 큰 화근으로 다가왔다. 마루를 평탄하게 갈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먼지가 빙금 끝낸 단청, 기둥 심지어는 천수관세음보살상에까지 수북하게 쌓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법당 안이 먼지 천지가 되버린 것이다. 스님은 진공청소기 및 걸레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먼지 제거에 나섰으나 먼지는 그대로 였고, 나오는 것은 한숨뿐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었다.

밤 늦도록 먼지 제거 작업에 지친 스님은 그대로 법당 안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꿈 속에서 휴휴암 앞 바다에 맑은 물에서 노스님, 젊은 스님, 동자승, 청신사, 청신녀, 수백 수천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빨래하고, 멱감고, 야단법석이 나 있어 스님은 이게 웬일인가 하고 쳐다보다 잠이 깼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법당안에 있어야 할 먼지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깨끗한 법당이 되어있지 않은가! 스님도 믿을 수가 없어 기둥을 문질러 보고, 단청도 만져 보았지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순간 스님은 이것이야 말로 천수관세음보살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감동하여 고맙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심으로 가슴이 울컥하였다고 한다.

특히 근래 휴휴암 앞 바다에 현신하신 해중관세음보살님은 휴휴암이 관음기도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설



◇해중 관세음보살님께 기도 드리는 거북 남순동자

탁트인 동해 절경속 방생 명소

을간직하고 있다. 스님이 휴휴암이 지어질 때 까지도 계시지 않았던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게 된것은우연치 않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3년전 성도재일 날 신도님들과 철야정진을 한 후, 아침에 떡을 찾으러 간 보살님들이 강릉시내에서 휴휴암에 오는 도중 무지개를 보았고 휴휴암에 가까이 오면 올 수록 무지개가 더욱 선명해 졌다는 것이였다.



◇방생하는 모습

철야정진을 마친 신도들도 묘적전에서 나와 무지개를 보니 법당을 향하여 바다로 원을 그리고 있었다.

모든 신도들은 벅차오르는 환희심에 합장을 하며 절을 하였다. 그러나 스님으로서 바로 나가 볼 수는 없었고 후에 나가보니 무지개는 서서히 바다쪽으로 움직여가고 있었다. 스님은 오늘 성도재일에 아침부터 무지개가 뜨니 보통 상서로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다.

이후 휴휴암 바닷가를 중심으로 바다 앞쪽부터 무지개가 원을 그리며 떠있는 현상을 몇번 주지실에서 보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자 스님은 바다에 나가 상세히 보게 되었고, 3년전 어느날 휴휴암 앞바다에 화판을 쓰고 쉬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게 된 것이다.



◇달마바위

휴휴암은 이름만큼 쉴 수 있는 명소들이 아기자기 하게 펼쳐져 있다. 자연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북바위(너래바위, 장수바위에는 약 5천명 정도 인원이 기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넓기가 한량없다.

본래 관세음보살은 보타 낙가산에 백의 관세음보살로 계시는데 이곳이 바로 그 성지가 아닐까!

거북바위에서 바다에 누워계신 해중관음보살님께 기도 드리러 오는 불자들의 행렬이 근래에 끊임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 주위에 산재해 있는 바위들은 마치 큰거북을 호위하듯이 새끼거북 모양을 한 바위들이 둘러있는데 특히 해중관세음보살님께 거북 가족이 불법을 배우러 가는 듯한 느낌에 사로 잡힌다.

휴휴암 도량 자체가 동해안 기도성지로써 중생의 업보, 세속의 번뇌 망상을 쉬는 곳이기 때문일까,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휴휴암은 진정한 휴식처가 될 것이다.

"쉬고 또 쉬는 사찰 휴휴암"



◇휴휴암 주지 홍법스님

휴휴암은 팔만사천 번뇌를 모두 다 쉬어라 하는 뜻에서 이름지었습니다. 마음과 몸 모든 것을 편안하게 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중관음보살님께서 휴휴암 앞 바다에 떡 하니 누워 쉬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휴휴암 묘적전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원을 세우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 집니다.

1600년 전 불교가 들어와 13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번창하였습니다. 약 3000년 전에 이 세상에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오셨고 석가모니부처님 이전에 연등부처님, 비바시부처님, 과거칠불이 계시었습니다.

그런데 휴휴암 앞 바다에 나타나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지구가 처음 형성되었을때 부터 같이 계시었던 것입니다.

이곳이야 말로 세계적인 불교성지가 아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이처럼 형성되어 편안히 쉬시고 계시는 것은 복잡한 세상에서 얽히고 설킨 일들이 있다지만, 휴휴암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쉬라는 법문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중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가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편안하고, 발원하시는 일 모두다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가락 바위

● 휴휴암 기도처 안내

주소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전화 : 033)671-0525 033)671-0093

011)366-6903



양양 휴휴암 주지 홍법 합장

기도드리며 생활하실 스님이나 절에서 생활하실 신심있는 보살님 구합니다. 보시를 드립니다.

휴휴암을 다니면서 겪은 체험 이야기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 매일같이 모여드는 불자들

"어린시절부터 불교와 인연이 되어 30여년 동안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 생활해 왔습니다."

정 보살님과 홍법스님의 인연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홍법스님께서는 삼화사 주지소임을 맡아 보시였고, 휴휴암을 건립할 때까지 보살님은 스님을 도와 온갖 불사를 도왔다.

휴휴암이 창건되고 난 후 보살님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여전히 휴휴암에 들러 기도 드리는 등 신앙생활은 여전하였다. 그러나 4년이 넘는 결혼생활에도 자식을 갖지 못하여 딸이 몹시 힘들어 하는 모습은 부모로서도 차마 볼 수 없는 고통이었다. 딸과 사위는 매우 건강하고 자식을 갖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보살님은 오로지 관음보살님께서만이 자식을 점지해 주실 것이라고 원을 세워 딸을 위해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집 근처 절에서 매일 새벽녘에 정성을 다해 백일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소금강에 볼일이 있어 딸과 함께 가던중 휴휴암에 들리게 되었고, 스님을 친견하면서 딸이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우연하게 말씀드리게 되었다.

스님께서는 바로 "그러면 몇일 있어 관음재일에 대중공양 드릴 사람이 없으니 보살님과 따님이 오셔서 공양준비를 해 주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관음재일에 딸과 함께 대중공양을 정성들여 시봉했다. 그날 저녁 몹시 피곤하여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들었다.

그런데 이날 꿈 속에서 백의 관세음보살님께서 빛으로 화하시어 오시는데 차마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장엄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였다. 관음보살님을 3번 친견한 후 문뜩 잠에서 깼는데, 꿈에서 깨어서도 그 백의 관세음보살님 모습이 하도 생생하여 한 없이 앉아 있었다. 아마도 휴휴암 묘적전에 모신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께서 꿈에 현몽하신 것 같았다.

아직 100일 기도를 회향하기 전이라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더욱 신심이 일어 정성드려 기도 드릴 뿐이었다. 꿈속에서 관음보살님을 친견한 20일 이후 딸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이 왔다. 아이가 임태 되었다는 것이다. 병원에서도 참 기가막히다는 말 뿐,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는 것이다.

'정말 묘하고 묘한 일이구나.' 감탄 하며 새삼 휴휴암 관음보살님의 위신력에 머리가 숙여졌다.

앞으로 휴휴암에서 아기 2돌 대중공양을 할 참이라고 웃으며 말씀하신다.